

완도 수산물로 만든 가정간편식 세계 입맛 잡는다

군, 코로나 극복 전국 첫 가정간편식 온라인 수출상담회 전북죽·다시마김치 등...62건 상담, 120만달러 계약

전복죽, 전복볶음밥, 전복미역카레, 다시마김치, 해초샐러드...

완도 수산물로 만든 가정간편식이 세계인들의 입맛 공략에 나섰다.

8일 완도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수출 부진 등을 극복하고 완도 수산물 해외시장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4일 가정간편식(HMR·Home Meal Replacement)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출상담회에서는 총 62건의 수출 상담과 5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0만달러의 계약 실적을 거뒀다. 코로나19로 해외 판로가 막힌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라는 평가다.

HMR은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대체식품을 말한다.

완도군은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세계적으로 간편하고 고품질의 가정간편식이 인기를 끌

자 완도 수산물로 만든 제품을 알리고 수산물 가정간편식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수출상담회를 마련했다. HMR 수출상담회는 지자체 중 최초로 기획됐다.

수출상담회에서는 전북죽과 전복건강보조식품, 전복 통조림, 전복 볶음밥, 전복 미역 카레, 다시마김치, 해초 샐러드 등 다양한 완도 수산물로 만든 HMR 제품을 선보였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누리영어조합법인, 다시마전복수산물영어조합법인, 만나씨푸드, ㈜바다명가, 바다향기, 완도세계로수산, 완도바다해맑은 등 총 12곳의 완도군 우수 수출기업이 참가했다.

참여 기업들은 "수출상담회에서 총 4개국 17곳의 동남아시아 우수 바이어들과 상견례를 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의 물꼬를 트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온라인 화상으로 완도군과 베트남 케이마켓 간 완도 수산물의 베트남 수출 판로 개척과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



완도군과 베트남 케이마켓은 최근 온라인 화상으로 '완도 수산물의 베트남 수출 판로 개척과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군 제공>

을 위한 업무협약식도 진행됐다.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시 화상 수출상담소 운영,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완도 수출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치매돌봄 공백 없다

곡성군, 가가호호 돌봄 서비스

곡성군이 코로나19 사태에도 치매환자의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가가호호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곡성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치매환자 심터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이로 인해 치매인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곡성군은 지난 7월부터 가가호호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게 됐다.

가가호호 돌봄서비스는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1대 1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치매 어르신들의 말벗되기, 건강상태 확인 등 일상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인지활동형 워크북, 인지교구, 공예치료 등을 활용한 인지활동 서비스가 핵심 내용이다. 대상자는 개인당 주 1회 총 8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곡성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가가호호 돌봄 서비스를 통해 지역 내 치매환자의 고립을 막고 치매 악화 방지와 인지 기능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목포 달맞이공원 보존 약속해놓고 주차장 짓는다니..."

인근 주민들, 공원내 주차장 조성 반대 "시장 말바꾸기·불통 행정" 성토 집회



목포 평화광장 인근 주민 100여명이 지난 6일 달맞이공원 주차장 조성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시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달맞이공원은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6일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던 목포 평화광장 갯바위 인근 달맞이공원. 인근 아파트 주민 100여명이 '목포 평화광장 리모델링사업 주차장 개설공사 반대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달맞이공원 훼손 없는 원형 보존, 공원 인근 도로의 대형버스 주차 금지, 주민 농락한 시정 공무원 징계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달맞이공원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복한 김종식 목포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김 시장이 집회를 열지 않으면 만나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시민 길들이기이자 불통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평화광장 주변 주민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달맞이공원 내 주차장 조성 때문이다.

목포시는 지난해 11월29일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 공청회를 통해 달맞이공원 내 주차장 조성을 발표했다.

목포시는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평화광장 일면 약 8만4000㎡에 차도와 인도·녹지공간 재조정, 주차장 6개소 587면 개설, 중앙광장 재정비 등 평화광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일 착공해 오는 12월 말 완공할 예정이다.

문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평화광장 주변 상인들의 의견만 반영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목포시는 상가 상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상가로부터 3분 이내 주차장 확보' 의견이 많아 주차장 설치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근 주민들은 주민의견 수렴은 고사하고 설명회 한번 개최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우미아파트 주민 이모(62) 씨는 "주민들의 질문에 목포시가 아파트 주민의 의견에 따라 달맞이공원을 존치하고 외곽에 주차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해놓고 주민들 모르게 공원 내 주차장 조성을 확정했다"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계 규탄했다.

성지아파트 주민 김모(47) 씨도 "공원 내 주차장은 인근 아파트 수백여 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공원을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담당자는 "평화광장 구조개선 사업의 하나로 차량 16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달맞이공원 내 조성할 계획"이라며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갯바위로 향하는 도로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빛차레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여수상의 "경도 해양관광단지, 복합리조트 지정을"

정부·지역 국회의원에 건의

여수상공회의소는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복합리조트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여수상의는 건의서에서 "여수 경도가 아시아 최고의 섬 리조트로 도약해 지역경제 회복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합리조트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여수상의는 "경도 해양관광단지가 복합리조트로 지정되면 고급 호텔과 국제회의 시설, 문화예술시설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다양한 시설들이 추가 될 수 있다"며 "관광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 수입

원으로 하는 아시아권 국가가 보유한 리조트와 견줘도 손색이 없는 국제해양관광지를 선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등은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복합리조트 사업계획 공모에 신청했으나 외국인투자 규모 등 정부가 제시한 조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탈락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는 2024년까지 1조5000억원을 들여 경도 일원 2.14㎢ 부지에 6성급 호텔과 리조트·골프장·상업시설·해상케이블카 등을 갖춘 아시아 최고의 복합 해양리조트로 조성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세얼굴

"사회적 약자·소외계층 보호 노력"

김동희 광주지검 장흥지청장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과 지역사회에는 부드러운 검찰관 행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김동희(여·46) 광주지검 장흥지청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지청장은 "전형적인 농어업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각종 보조사업 특혜 및 토착형 비리 근절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청장은 1907년 장흥지청(재판소) 개청 이래 최초 여성 지청장이다. 광주 출생인 그는 전남여고와 한양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44회(사법연수원 34기)에 합격했다. 지난 2005년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전주지검·서울남부지검,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18년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됐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 물건

- 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 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622.57㎡(18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3,574,778,000원(70%) 유찰 1회
- 공장** ▶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 18875.5㎡(5709.8평) 건물 : 6386.82㎡(1932평)
감정가 : 5,994,297,460원
최저가 : 4,196,008,000원(70%) 유찰 1회
- 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토지 : 10323.1㎡(3122.7평) 건물 : 1155.94㎡(349.7평)
감정가 : 1,892,743,280원
최저가 : 1,324,920,000원(70%) 유찰 1회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